

Sometimes (it should be at least 4 times a week) I wake up early so that I can go for a walk before breakfast to get my 45 minutes plus of good exercise. Normally I thrash about in the dark, trying not to disturb Anne (my wife) as I gather up my clothes before stumbling towards the bathroom. Only once I'm in the bathroom do I put on the light. And then all is clear. And often what is clear is that I've picked up the wrong clothes.

저는 가끔 (적어도 일주일에 4 번은 해야지요) 아침먹기전 산책을 하기위해 일찍 일어나, 45 분 이상의 바람직한 운동시간을 갖고 합니다. 보통은 욕실로 더듬어 가기전에 저의 옷가지들을 모아두는데요, 저는 앤을(제 아내)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어둠속에서 더듬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욕실에 들어섰을때야 불을 켜지요. 그런다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종종 그 분명해지는 것이란 제가 옷을 잘못 들고 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The first act of creation was the creation of light.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enesis 1: 3). The world was in darkness. God spoke and there was light. God's word brought light to darkness. Wherever and whenever God speaks, the result is light. The psalmist says, "The unfolding of your words gives light" (Psalm 119: 130).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salm 119:105). The opposite is also true. Where God's word is absent, darkness closes back in. We know from our own experience how a word can bring light. Maybe there's a topic you find confusing. And then someone explains it clearly or comes up with a great illustration. And you say, "Ah, now I get it. Now it makes sense".

창조의 첫번째 행위는 빛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창세기 1:3). 세상은 어둠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둠속에서 빛이 가져와진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디서든, 언제든, 그 결과는 빛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 빛을 주나니"(시편 119:130).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그 반대도 역시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을때, 어둠은 다시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빛을 가져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때 여러분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거나 훌륭한 이해를 가져와 준다면, 여러분은 그제야 "아하 이제 알겠다. 이제 그것이 이해된다"고 말할것입니다.

In a similar way humanity is confused about life, God, identity, truth and the future. We're confused because we are creatures with a limited understanding. And we're confused because we are sinners with a warped understanding.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은 삶과 하나님, 자아 신분과, 진실과 미래에 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뒤틀린 이해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But at the first Christmas, says the apostle John in the Prologue to his Gospel, God's Word entered history in the person of Jesus. And what was the result? What it had always been and always is when God speaks: light. So John says,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John describes how John the Baptist came as a witness to the imminent coming of the light (1: 6-8).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says (1: 9).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의 서론부에 말한 것처럼,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라는 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그래왔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온 인류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더라"(요한복음:6-8). 그는 "모든이에게 빛을 가져다 줄 참된 빛이 세상에 오시고 있나니,"(요한복음 1:9) 라고 말합니다.

In the Old Testament God brings light through his Word. What John tells us as he begins his Gospel is that Jesus is the living Word through whom God brings light. And that is what we see throughout John's Gospel. Jesus say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8:12). In

John 9, Jesus heals a blind man. It is a demonstration of his ability to bring light. The disciples assume that the man must be blind because of some specific sin. So, since the man was born blind, they ask whether it was the sin of the man himself or his parents. But Jesus says that the man was born blin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9: 3). And what is it that will be displayed in this man? Jesus says immediately before healing the man,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9: 5). When the Pharisees rejected this healing and the healed man, Jesus comments,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9: 39). The miracle embodies the way in which Jesus confirms the darkness of those who reject him, but brings light to those who receive him.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빛을 가져올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걸지 않나니 생명의 빛을 가졌음이니라”(8:12). 요한복음 9 절에서 예수님은 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빛을 가져올수 있는 그의 능력을 대한 입증이었습니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 눈이 멀게 된것이라고 단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9:3)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즉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9:5)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치료와 치료받은 그 사람을 부인했을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9:39). 그 기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둠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빛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시는 하나님의 실현 방식이었습니니다.

The light God shines – the Word he speaks – is Jesus. Now through the power of his Spirit, we are able to say, “Ah, now I get it. Now it makes sense”. We’re no longer blundering, no longer guessing. We can see the truth about life, God, identity, truth and the future. That is sometimes challenging – in the light of the Word, we see that we’ve picked up the wrong ideas or adopted the wrong behaviours. But that is always positive – because it brings clarity where once there was only confusion.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 “아하, 이제 알겠다. 이제 그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이상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이상 어림잡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진리와 미래에 관한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은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의 빛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골랐고, 잘못된 행동을 적용했었던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언제나 긍정적인 것입니다-왜냐하면 일단 혼란이 있어야 분별이 오는 것이니까요.

Jesus is the Word, through whom we hear God’s voice and through whom God made the world. Now we see that Jesus is the Word through whom God brings light to the world.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인것입니다.

John goes on in verse 5 of chapter 1 of his Gospel to say,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Is that true? Is that how it feels in your neighbourhood? In your workplace or place of study? In your culture? Often it feels as if the darkness is overcoming. It feels as if the light is flickering and faltering, like a failing flame. “This is the verdict”, says Jesus,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3: 19).

요한은 그의 복음서 1 장 5 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취되 어두움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갖는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문화에서? 가끔은 어두움이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마치 빛이

(John 1: 1-14)

꺼져가는 불꽃처럼 깜박거리고 팔락이는 것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3:19) 라고 말합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the light. Was that true at the cross? “Walk while you have light before the darkness overtakes you”, says Jesus (12: 35). The word “overtake” is the same as “overcome” here in John 1: 5. There was a moment when the darkness overcame the light. And that moment was the cross. As Jesus hung on the cross, we are told that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Mark 15: 33). The light of the world was covered over by darkness. And then the light was extinguished.

어두움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3:19)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 “overtake”(붙잡히다)는 1 장 5 절에서 “overcome”(극복하다)와 같은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낸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십자가에서 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때,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마가복음 15:33) 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에 의해 가려졌고, 빛은 소멸되었습니다.

The cross is the ultimate expression of human hatred of God. We constantly and consistently reject the light of God’s revelation. Why? Because our deeds are evil. In other words, we don’t want to face the reality of who we are. And we don’t want to change who we are. We don’t want to know God because we prefer evil. Paul says in his letter to the church in Rome, “What may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people),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Romans 1: 19). But people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Romans 1: 18). We do this every day by ignoring the light of God. And when the light of God came in human form, we murdered him. Maybe now we can be left to our dark and evil ways.

그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증오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왜냐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현실을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함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사람들에게) 쉽게 보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쉽게 보이셨느니라”(로마서 1:19).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로마서 1:18).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무시함으로써 날마다 이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형태로 왔을때, 우리는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둡고 사악한 방식으로 남겨질수 있게 될것입니다.

But the light did not stay dea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Jesus the light rose again at dawn on the third day. As the light of a new day broke, so the light of a new age – the gospel age, the age of grace – dawned.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aid Jesus,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12: 46). Here’s the thing: light always wins. It’s an unequal contest. We know this from our own experience. Light and darkness are asymmetrical. Light dispels darkness simply by its presence whereas darkness doesn’t naturally extinguish light. You can’t have a “torch-dark” that casts a beam of darkness into the light! But a “torch-light” casts a beam of light into the darkness – no matter how much darkness there is.

그러나 그 빛은 죽은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취되 그 어두움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예수님, 그 빛은 세째날 새벽에 다시 사셨습니다. 새날의 그 빛이 발하여 새 시대의 빛-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12:46)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은 대결입니다. 우리는 이점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자연스럽게 제거 할수 없는 반면, 빛은 간단히 그 존재만으로 어두움을 몰아낼수 있습니다. 빛속에서 어둠을 뺏어내는 “어둠의 햇불” 같은 것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햇불”은 어둠속에서 빛의 광선을 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Jesus says, "Put your trust in the light while there is still time; then you will become children of light" (12: 36). If you have put your trust in Jesus the light, then you are a child of light. And the darkness has not and will not overcome the children of light.

예수님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3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 그 빛안에 둔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빛의 자녀들을 이겨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The world does not stay in darkness. At Christmas light entered the world. One of the passages we often read at our Christmas services is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deep darkness a light has dawned" (9: 2).

세상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빛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예배에 종종 읽는 말씀중의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 서에서 온 것입니다: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이사야 9:2).

With the coming of the living Word, Jesus Christ, light broke into the darkness of this world. And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Word, God declared that the light would never be extinguished. And, in putting our faith in Jesus, we have been called out of darkness. "We are a chosen people...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we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us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We need never be overcome by the darkness, and can always live in the light. There is never any need for, nor any excuse for, returning to the darkness. May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so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knowing that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1 John 1: 7). And may we, like John the Baptist, be witnesses to the light, living to bear witness to the fact that Jesus is the light that illuminates our lives.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 빛이 다시는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 밖으로 불러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요....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우리는 결코 어둠에 정복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빛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필요도, 어떤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빛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귀이 있고 서로간의 사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9)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삶을 그려나가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간직한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